과산화수소수 국산화“ 맑음"

수요기업 국산 사용증가 … 1~4M급 전량 국산화 완료

반도체용 고순도 약품인 과산화수소수의 국산화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산 과산화수소수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수요를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 등 국내 과산화수소수 수요기업들이 국산 과산화수소수를 채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과산화수소수 생산기업인 동우반도체약품, 삼영순화 등의 꾸준한 품질향상 노력과 국내 과산화수소수 수요기업들의 국산화 의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 과산화수소수 수요는 1만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삼영순화가 34 80톤을 공급해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우반도체약품이 2160톤을 공급 21%, KANTO가 1480톤을 공급 14. 4%, 스미토모가 1400톤을 공급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신도키 등이 나머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과산화수소수 공급현황 (단위 : M/T, %)

구 분	기 업 명	생산능력	공급량	M/S	수 요 처
H_2O_2	동우 반도체 약품	5,000	2,160	21.0	삼성전자, 기흥1 · 4 · 6 라인, 한국전자
	삼영순화	5,000	3,840	33.9	삼성전자, 기흥 2.3라인 현대전자 Fab Ⅰ.Ⅱ 금성일렉트론 Phase Ⅰ.Ⅱ, 포스코홀즈, 실트론
	KANTO	-	1,480	14.4	현대 E-Ⅰ, E-Ⅱ
	스미토모	-	1,400	13.6	삼성전자

삼영순화는 삼성전자의 기흥 2 · 3라인과 현대전자의 FabⅠ, FabⅡ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우반도체약품은 삼성전자의 기흥 1 · 4 · 6라인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408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전자와 금성일렉트론이 각각 3160톤, 900여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반도체 3사의 1-4M급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수는 전량 국산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16M급 이상에서도 신규라인에 국산 과산화수소수를 채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우반도체약품은 삼성의 기흥 4라인 공급에 이어 기흥 6라인에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동우반도체약품은 현재 5000톤 규모인 생산능력을 1만톤 규모로 95년4월 완공예정으로 증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영순화는 삼성의 기흥 5라인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용 고순도 과산화수소수의 가격은 그레이드별로 5 10달러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M급을 기준으로 Kg당 2.1 2.3달러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순도 과산화수소수의 수요는 반도체 라인 증설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개 라인 건설시 1200 1600 T/년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과산화수소수의 국산화는 아직은 4 M이하에 치우쳐 있으나 수요기업들의 국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16M급 이상에서의 국산화율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4/10/24>